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1월 6일

CUOMO 주지사는 "연말 조명 잔치"가 존스 해변 주립 공원에 돌아왔음을 발표

휴일 전통의 지속은 존스 해변의 활성화를 계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YCB 가족 은행이 주관하는 차로 지나갈 수 있는 연말 조명 잔치가 11월에 존스 해변의 서쪽 끝으로 돌아와 공원에서 2007년부터 지속된 롱 아일랜드의 연말 전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대규모의 Live Nation과 제휴하여, 연말 조명 잔치는 2.5 마일의 길이의 거리에서 15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과 동기화 된 빛의 잔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방문자들에게 연말의 화려하고 놀라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말 조명 잔치는 롱 아일랜드의 전통으로 7년 만에 이를 부활하도록 돕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전시는 각지에서 방문자들을 모으고 롱 아일랜드 경제에 중요한 향상을 제공합니다. 저는 모든 뉴요커들이 연말에 여행을 하고 이러한 광경을 보기를 독려합니다."

연말 조명 잔치는 11월 20일 목요일에 시작하여 1월 4일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방문자자들은 매일 황혼에서 저녁 10시까지 이 조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11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립 공원은 연말 조명 잔치가 존스 해변 주립 공원에 다시 오게 되어 환영합니다."주립 공원 위원 Rose Harvey가 말했습니다. "연말 조명 잔치는 비수기에 더 많은 방문자들을 유치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원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더욱 다양한 야외 활동 기회를 추가하기 위한 존스 해변 활성화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종합 계획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전통을 되살리는 데 훌륭한 제휴처가 되어 준 Live Nation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휴가 기간에 그들을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연말 조명 잔치를 존스 해변에서 다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지역 사회로 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Live Nation 북대서양 사장 Alan Ostfield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공원을 통해 드라이브를 하며 한 해의 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연말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롱 아일랜드 주민들이 존스 해변 주립 공원에서 와서 이 연말 기간에 제공하는 그리고 일년 내내 제공하는 것들을 즐기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의 연말 조명 잔치는 홀리데이 빌리지의 첫 개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홀리데이 빌리지는 산타, 연말 음악, 연말 음식, 지역 학교 합창단 공연과 홀리데이 빌리지에서 반짝이는 빛을 통해 마법의 여행을 제공할 건초 미로를 제공합니다.

연말 조명 잔치의 입장료는 주중에 차량당 20달러이며 주말은 25달러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일엔 2번"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두 번째의 연말 조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적이고 심미적인 웅장함을 복원하며 폭풍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공원에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경제 개발을 존스 해변 활성화 계획으로 6500만 달러를 발표했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